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휴대전화 의존도를 매개로 하여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Adolescents' Offenses : The Mediating Effects of Mobile phone Dependency

김지윤,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Ji-yoon Kim(hapyunaa@naver.com), Hyun-ah Kang(hkang3@sookmyung.ac.kr)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휴대전화 의존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1,2,3차년도 조사에 총 2,086명의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첫째,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매개변수인 휴대전화 의존을 줄이는 것으로,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휴대전화 의존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각각의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 의존도와 청소년 비행을 줄이는데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정책적,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 휴대전화 의존 | 청소년 비행 | 매개효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mobile phone depend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juvenile delinquency. This study used the secondary data from the 1st, 2nd and 3rd waves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2010, KCYPS). The data of 2,086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by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had no direct effects on juvenile delinquency, while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had significantly decreased adolescents' mobile phone dependency. In additio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had positive effects on adolescents' mobile phone delinquency. Second, mobile phone dependency was fully mediated by parenting attitudes and juvenile delinquency.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of study,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by improving parenting attitudes.

■ keyword : |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Mobile Phone Dependency | Juvenile Delinquency | Mediating Effects |

1.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여러 발달과업들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내·외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비행이라는 일탈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소년 비행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주로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되어왔는데, 사회적 요인에는 가정 관련 변인과 함께 최근에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스마트미디어의 보급률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14)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약 5천720만 명으로 그 수는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휴대폰, 스마트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휴대폰 보유율은 92.5%이며, 이 중 스마트폰 보유율은 86.6%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단순히 통신수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2].

미래창조과학부(2014)에서 실시한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2012년 18.4%, 2013년 25.5%, 2014년 29.2%로 3년 연속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인(11.3%)의 스마트폰 중독보다 약 2.6배 높은 수치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즉,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화뿐 아니라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학업용 검색, 온라인 게임, 음악 감상, 뉴스검색, 일반적인 웹 서핑, SNS활동, 인터넷 쇼핑 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3].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없이는 불편함을 느끼며 휴대전화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의존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4].

휴대전화 의존이란 빈번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일상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5],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자아 존중감, 정서안정성, 문제해결능력, 대인 신뢰감, 자기 통제력이 낮은 반면에 충동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특히, 휴대전화 의존은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7-9].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의존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고[9] 휴대폰 사용여부에 따라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음주비행, 흡연비행의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평가척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군에 속하는 청소년에게서 비행행동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11].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부터 절도, 강간, 강도와 같은 범죄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청소년기의 휴대전화 의존과 비행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 중단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청소년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전화 의존을 높이는 요인은 무엇일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12]이나 자아 존중감[13] 및 자기통제력[12][14]과 같은 내적 심리적 요인을 그 영향요인으로도 꼽았지만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많은 영향을 주는 부모요인에도 주목하였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14-19].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나 행동으로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해준다[20][21].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Symond(1949)는 크게 거부적-보호적, 지배적-복종적이라는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Schaefer(1965)는 애정-적의, 통제-자율의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Maccoby와 Martin(1983)은 부모역할을 권위적, 독재적, 허용적, 방임적 부모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22].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환경은 가정이며[23],

가정은 교육이 실행되는 최초의 장소로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격이나 행동양식 등을 형성해 나간다[24]. 따라서 부모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가에 따른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와 휴대전화 의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와 친밀하고 개방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나타내는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15], 부모가 부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경우 청소년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불만족스러워 휴대전화와 같은 도피처를 통해 대체적인 심리적인 만족과 안정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16-19]. 또한,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적인 특징을 보이는 부정적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휴대전화 의존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런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가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의 애착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강한 유대관계를 나타내며,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부모의 기대와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쉽게 이탈행동을 하게 된다[25]. 반대로,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평균이하이면 비행경험이 급격히 증가하고[26],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음주와 비행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요인으로[27],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을 포함하는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을 저지르는데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28-30]. 이외에도, 애정과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31], Amato와 Fowler(2002)의 NSFH(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의 아동 및 청소년의 국가 데이터를 이용한 종단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와 애정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학업적 적응을 잘하며, 부모가 높은 감독수준을 나타낼 때 청소년은 적은 이탈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2]. 그리고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간의 종단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5학년 시기의 부모의 지지가 5학년 때

의 학교적응 뿐 아니라 2년 후인 7학년 때의 학교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3], Demaray 등(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지지가 1년 후의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34].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을 잘 하도록 하여 비행을 줄이는 종단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가 종단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종단연구는 국외에는 있으나 국내에서는 드문 상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휴대전화 의존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가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고 휴대전화 의존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 휴대전화 의존, 청소년 비행 각각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으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휴대전화 의존을 매개로 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종단적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시간경과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가 1년 후인 2학년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매개로 하여 2년 후인 3학년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을 낮춤으로써 비행행동도 감소시키고, 반대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을 높임으로써 비행행동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여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1,2,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가 각각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휴대전화 의존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행 사이에서 휴대전화 의존도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II. 조작적 정의

1.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은 자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단계에서 행동과 정서·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비행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35-41].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고 보편적인 행동을 말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구분은 학자마다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허묘연(1998)이 개발연구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에 있는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각각 변수의 정의를 살펴보면, 애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양육행동을 의미하며,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양육행동이다.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있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양육행동으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양육행동이며, 과잉간섭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 제약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개

인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밀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32]. 특히, 허묘연(1998)은 이 변수 중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결과[42]를 기반으로 허묘연이 개발한 양육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를 크게 애정적, 감독적, 합리적 설명을 긍정적인 양육태도[15]로,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을 부정적인 양육태도[43-46]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 양육태도에 애정적, 감독적, 합리적 설명을 포함하였고,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청소년 비행은 흡연, 음주, 음란물 시청과 같은 경미한 일탈행동부터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청소년 비행개념은 단순히 법의 위반에서부터 청소년의 사회적 부적응을 보여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4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지만 사회학습이론과 사회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낙인이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48].

이 중 사회통제이론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가 내적·외적 요소에 따라 통제되기 때문이라고 본 이론이다[49]. 특히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부모나 양육자에 의해 가정에서 훈육, 양육태도, 감독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제를 사회통제의 주요한 형태 중의 하나로 보았다. 예를 들어, 사회통제이론가 중 한 사람인 Nye(1958)는 사회통제를 내면적 통제, 간접적 통제, 직접적 통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내면적 통제는 개인의 자아개념, 양심 등에 사회규범이 통합됨으로서 자발적으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며, 간접적 통제는 부모나 타인에 대한 동일시나 애정적 관계를 통해 규범을 준수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부모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특히 직접적인 통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행동상 규제나 감독, 훈육 등을 의미하며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통제에 있어 가정을 가장 중요한 곳으로 보고 있다[50][51].

3. 휴대전화 의존

최근 휴대전화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휴대전화 의존도라고 개념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중독, 과사용, 문제적 사용 등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15][16]. 아직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 의존은 전반적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집착과 의존성향, 통제에 대한 어려움, 내성 또는 금단현상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2].

장혜진과 채규만(2002)은 휴대전화 중독을 Goldberg(1996)의 인터넷 중독의 진단에 기초하여 의존, 내성, 초조불안, 금단의 증상으로 정의하였고[6], 성운숙(2008)은 휴대전화 의존은 휴대전화를 분신처럼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며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며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9]. 박주나와 전종설(2013)은 휴대전화 의존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불안해 지거나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심리적 의존과 초조 불안 등의 정서적 반응 등에 의해 휴대전화 사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16].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휴대전화 의존을 매개로 하여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변수로, 비행을 종속변수로, 휴대전화 의존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아지고, 부정적일수록 휴

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고,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어 비행 행동을 줄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도를 높여 비행 행동을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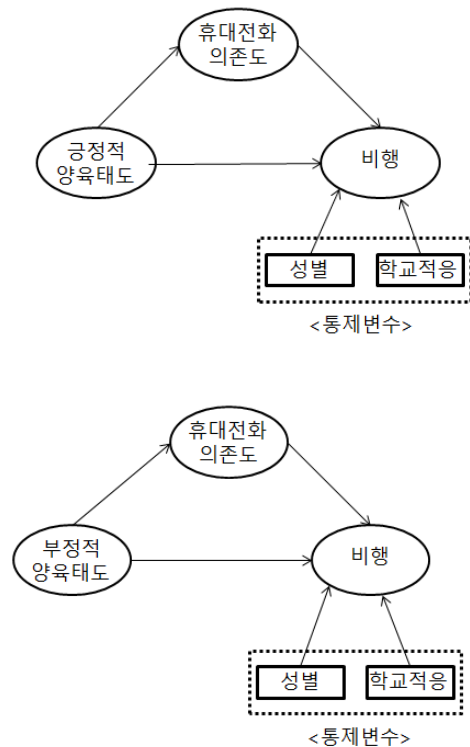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1~3차년도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대상을 중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조사한 인

터넷조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청소년 연령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에서 중학생이 33%, 고등학생이 27.7%, 초등학생이 26.7%, 대학생이 20.5%로 중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13년 경찰청 범죄 현황에서도 14세에서 16세의 연령이 전체의 40%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고려할 때 특히 중학생 시기의 휴대전화 의존과 비행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지는 데이터이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추적 조사하는 단기종단 패널데이터이다. 조사기간은 1차년도는 2010년 10월에서 11월까지였으며, 2차년도는 2011년 10월에서 12월까지, 3차년도는 2012년 10월에서 12월까지였다.

1차년도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2차년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3차년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2차년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1차년도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3차년도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에는 남학생은 1,140명, 여학생 1,119명으로 총 2,259명을 포함하였는데,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종 2,086명의 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변수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남학생은 1034명(49.6%), 여학생은 1052명(50.4%)로 나타났으며, 부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72명(3.5%), 고졸이 775명(37.2%), 전문대졸이 193명(9.3%), 대졸이 757명(36.3%), 대학원졸이 82명(3.9%)이었다. 모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61명(2.9%), 고졸이 1040명(49.9%), 전문대졸이 196명(9.4%), 대졸이 578명(27.7%), 대학원졸이 34명(1.6%)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034	49.6	
	여자	1052	50.4	
부모 학력	부	중졸이하	72	3.5
		고졸	775	37.2
		전문대졸	193	9.3
		대졸	757	36.3
		대학원졸	82	3.9
	모	중졸이하	61	2.9
		고졸	1040	49.9
		전문대졸	196	9.4
		대졸	578	27.7
		대학원졸	34	1.6

3. 조사도구

3.1 종속변수 : 비행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3차년도 패널데이터 중 비행 행동으로 1년간 비행 경험유무를 사용하였다. 그 문항으로는 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 따돌림 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의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예는 1점, 아니오는 2점으로 답하도록 되어있으나 해석편의를 위해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리코딩하여 총 점수를 합산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674(Cronbach's α)로 나타났다.

3.2 독립변수 :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1차년도 패널데이터로, 허묘연(2000)의 부모양육태도검사도구와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을 수정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4문항), 감독(3문항), 합리적 설명(4문항)을 긍정적 양육태도로,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4문항), 비밀관성(3문항)을 부정적 양육태도로 사용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에 속하는 설문문항에는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외출할 경우 언제 돌아올지 알고 계신다',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양육태도에 속하는 설문문항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나에 대한 걱정을 덜 하셨으면 좋겠다',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다',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 하신다',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하시며 내게는 못 하게 하신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 하신다',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시 때가 많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부모님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양육태도는 4점의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1점, 그런 편이다는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3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독적이고, 애정적이고, 합리적 설명을 더 잘하고, 과잉기대를 하고, 과잉간섭을 하고 비일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는 긍정적 양육태도는 .855(Cronbach's α), 부정적 양육태도는 .833(Cronbach's α)로 나타났다.

3.3 매개변수 : 휴대전화 의존도

매개변수는 휴대전화 의존도로 2차년도 패널데이터에서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2002)가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설문문항에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참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의 7문항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4점 Likert척도이며, 모름이나 무응답은 9점으로 처리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편의를 위하여 역코딩하여 그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898(Cronbach's α)로 나타났다.

3.4 통제변수 : 성별,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 성별은 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여러 연구의 결과[53-56]에 제시되어 있다.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남성이[54], 강압적인 양육이나 폭력은 여자 청소년

에게서[55], 부모와의 갈등은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강하다는 결과가 제시된다[57]. 성별은 남자(1), 여자(0)으로 리코딩하였다.

또, 학교적응에 해당하는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와 비행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와 청소년사이의 관계가 비행에 영향을 주고, 교우관계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26][58]. 이 문항들은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하여 재구성하였다.

이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성별과 학교적응 요인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을 통제하였다.

4. 분석방법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SPSS 22.0 통계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18.0을 사용하여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휴대전화 의존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확인적 모형 분석(confirmatory analysis)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각 측정변수의 회귀계수 및 요인적재량 등을 확인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분석(structur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인과모형에 통제변수로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적응도 함께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애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표준편차)는 12.06(2.60), 감독적 양육태도의 평균값(표준편차)는 9.48(1.96), 합리적

설명 양육태도의 평균값(표준편차)는 8.48(2.01), 과잉 기대적 양육태도의 평균값(표준편차)는 10.52(2.63), 과잉 간섭적 양육태도의 평균값(표준편차)는 9.66(2.51), 비밀관적 양육태도의 평균값(표준편차)는 7.00(2.05), 휴대전화의존도의 평균값(표준편차)는 16.15(5.25), 비행의 평균값(표준편차)는 .28(.84)로 나타났다. 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비행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변수는 비행이라는 특이한 요인으로 인해 첨도와 왜도가 정규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다른 선행연구[52-54]에서도 정규성을 벗어났지만 이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인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이러한 편향을 수정하여 추정할 수 있는 부트스트랩 방식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표 2.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긍정적 양육태도	애정	12.06	2.60	-.58	.24
	감독	9.48	1.96	-.61	.10
	합리적 설명	8.48	2.01	-.40	.13
부정적 양육태도	과잉기대	10.52	2.63	-.03	-.37
	과잉간섭	9.66	2.51	.09	-.17
	비밀관성	7.00	2.05	.12	-.20
휴대전화 의존도		16.15	5.25	.25	-.48
비행		.28	.84	4.79	33.77

2. 측정모형분석 :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측정변수들이 요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은 [표 3]에서 설명하고 있다. 모든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요인적재량이 .5이상으로 그 값이 유의하였고, Critical Ratio는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요인 적재량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측정모형의 요인 적재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회귀 계수	표준화 회귀 계수	S.E.	C.R.
긍정적 양육	애정	1.897	.966	.168	16.916***
	감독	1.000	.450		
	합리적 설명	1.501	.659	.078	19.298***
부정적 양육	과잉 기대	1.000	.771		
	과잉 간섭	1.058	.855	.034	31.039***
	비밀관성	.666	.661	.024	28.054***
휴대 전화 의존도	의존도1	1.000	.667		
	의존도2	1.284	.762	.042	30.512***
	의존도3	1.083	.713	.038	28.830***
	의존도4	1.202	.717	.042	28.962***
	의존도5	1.395	.832	.043	32.766***
	의존도6	1.257	.785	.040	31.289***
	의존도7	1.319	.748	.044	30.058***

(***p<.001)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적합도 분석 결과, NFI, IFI, TLI, CFI, RMSEA를 통해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NFI, IFI, TLI, CFI는 .90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고 RMSEA는 .05이하이면 매우 좋으며, .08이하이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df)$	NFI	IFI	TLI	CFI	RMSEA
695,661 (62)	.941	.946	.932	.946	.070

3. 연구모형 : 구조모형방정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NFI, IFI, TLI, CFI, RMSEA를 통해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chi^2(df)$	NFI	IFI	TLI	CFI	RMSEA
모형 1	898,545 (68)	.909	.915	.893	.915	.080
모형 2	827,121 (62)	.921	.926	.907	.926	.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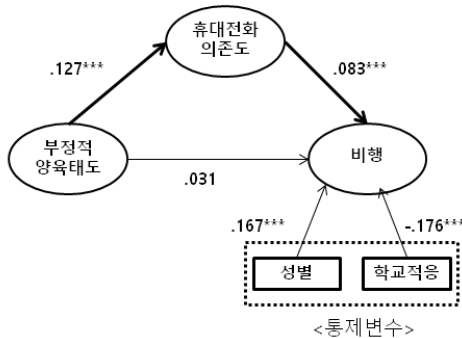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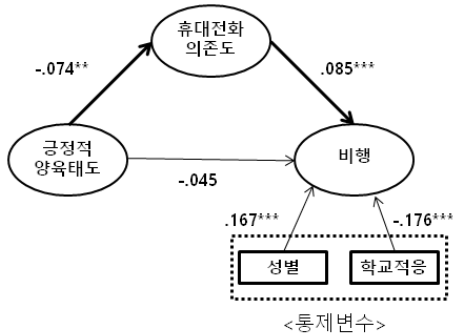
3.1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를 [표 6]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6.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itical ratio
모형 1	긍정적 양육태도 → 휴대전화 의존도	-.061	-.074	.021	2.952**
	긍정적 양육태도 → 비행	-.040	-.045	.021	-1.963
	휴대전화의존 → 비행	.093	.085	.024	3.821***
모형 2	부정적 양육태도 → 휴대전화 의존도	.048	.127	.010	5.041***
	부정적 양육태도 → 비행	.013	.031	.010	1.330
	휴대전화의존 → 비행	.090	.083	.025	3.672***

** $p < .01$, *** $p < .001$



** $p < .01$,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표 6]에 제시된 각 모수추정치를 통해 볼 때,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Critical Ratio=-2.952, $p < .01$)으로 나타났으나 비행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의존은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itical Ratio=3.821, $p < .001$).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을 줄이고, 휴대전화 의존이 낮아지면 비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Critical Ratio=5.041, $p < .001$), 휴대전화 의존은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itical Ratio=3.672, $p < .001$). 그러나 비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을 높이고, 높은 휴대전화 의존은 비행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3.2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모두 비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휴대전화 의존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변수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전체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각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45, 간접효과는 -.006, 총 효과는 -.052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휴대전화 의존을 낮추고 이것은 비행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44, 간접효과는 .016, 총 효과는 .060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하여 비행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휴대전화 의

존이 간접효과만을 갖는 완전매개모형으로 휴대전화 의존이라는 매개변인이 비행에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구조모형 내 경로의 총 효과 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모형 1	긍정적인 양육태도 → 휴대전화 의존도	-.074		.074
	긍정적 양육태도 → 비행	-.045	-.006*	-.051
	휴대전화 의존 → 비행	.085		.085
모형 2	부정적인 양육태도 → 휴대전화 의존도	.127		.127
	부정적인 양육태도 → 비행	.031	.011*	.042
	휴대전화 의존 → 비행	.083		.083

* $p < .05$

3.3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 8]의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이 -.011, 상한값이 .002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이 .005, 상한값이 .017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8.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Lower bounds	Upper bounds
긍정적 양육 → 비행	-.011	-.002
부정적 양육 → 비행	.005	.017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차년부터 3차년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사

회통제이론에 근거를 두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휴대전화 의존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 1차년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3차년도 비행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8][29][32][44]와 과보호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30]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점점 고학년이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15]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에 정적인 영향, 즉, 휴대전화 의존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들[16][62]과 유사할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휴대전화 의존을 낮추거나 높이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휴대전화 의존은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비행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대로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비행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통제이론이 설명한 바와 같이 부모의 내·외적인 통제는 청소년 비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이다. 또, 이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5][16][62-64]와 휴대전화의존이 높을수록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9][10]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휴대전화의존,

비행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휴대전화의존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비행의 원인을 파악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거나 간섭하지 않으며, 일관성을 가진 양육태도를 취함으로써,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태도가 과도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58] 청소년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하는 시기라는 발달상 특성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부모교육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청소년의 실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비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미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함께 이들의 부모를 상담에 함께 참여시켜 상담적인 개입을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부모교육도 함께 실시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올바른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방과 후 학원과 같은 학교 밖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의존과 연결되므로 효과적인 캠페인을 통해 전체적인 인식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인식변화와 함께 올바른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대한 정착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즐길 놀이문화가 부재하여 청소년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찾은 것이 휴대전화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청소년의 놀이문화의 정착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이나 사회복지 NGO ‘러빙헨즈’에서는 1018(만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위해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방문문화가 아닌 청소년들이 편히 머물러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청소년의 놀이문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전반에 건강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휴대전화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인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중독대응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상담원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예방교육과 프로그램개발을 전적으로 맡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상담원의 확충과 육성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예방교육과 함께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통제변수로 패널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부모의 2-3차년도 양육태도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시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변수를 통제했다면 더욱 신뢰할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행의 예측요인을 가중요인과 함께 요즘 청소년에게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휴대전화 의존이라는 요인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비행을 줄이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4.
-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년 미디어보유와 이용행태의 변화,” KISDI STAT REPORT, Vol.15-17, 2015.
- [3]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4.
- [4] 김지혜, “부모요인, 친구요인, 개인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용도를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3호, pp.97-120, 2012.

- [5] 김동현, 오민석, “청소년 휴대폰 중독의 위험요인 탐색, 선택이론 관점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pp.312-327, 2012.
- [6] 장혜진, 채규만, “기술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건강, 제11권, 제4호, pp.839-852, 2006.
- [7] 박순천, 백경임, “컴퓨터 중독청소년의 MMPI특성,” 대한간호학회, 제43권, 제7호, pp.1-21, 2005.
- [8] 김미숙, “청소년들의 휴대폰 사용이 청소년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권, 제1호, pp.115-138, 2011.
- [9] 성윤숙,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2호, pp.291-321, 2006.
- [10] 허준, 이윤호,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 제2호, pp.213-240, 2012.
- [11] 서창민, 이종훈, 최태영, 김지현, 신임희, 우정민, “스마트폰 중독경도와 한국형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제18권, 제2호, pp.223-230, 2012.
- [12] 구현영, “청소년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제39권, 제6호, pp.818-828, 2010.
- [13] A. Bianchi and J. G. Philips,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roblems mobile phone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8, No.1, pp.39-51, 2005.
- [14] 장성화, 박영진, “휴대폰 중독 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한국교육논단, 제8권, 제3호, pp.25-41, 2009.
- [15]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5호, pp.161-187, 2012.
- [16] 박주나, 전종설,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제10권, pp.127-160, 2013.
- [17] Alex Blaszczynski and Lia Nower, “A pathways model of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Addiction*, Vol.97, pp.487-499, 2002.
- [18] 박훈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9] 김진숙, 문현주, 황승일,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공격적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제27권, pp.1-24, 2014.
- [20] E. S. Schaefer,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Vol.36, pp.417-424, 1965.
- [21] 이세경, 김영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이 숨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5권, pp.245-266, 2011.
- [22] 고두훈,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일반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3] 이영화, *청소년의 성격특성 및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24] 이재성, 문영경, 최협임,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제21권, 제2호, pp.233-246, 2012.
- [25] 이상균,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초기, 후기비행 진입 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24권, pp.249-282, 2008.
- [26] 정기원, 권량희, “부모 및 교사 애착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일반긴장이론의 실증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5호, pp.81-102, 2006.
- [27] 김용석, 박명숙, “청소년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2권, pp.83-106, 2000.
- [28] 김혜영,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

- 교, 박사학위논문, 2000.
- [29] 박나래, 정익중, “방임, 과보호가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37권, pp.139-164, 2012.
- [30] 이승우,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1] 정현욱,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이소희, 김세주,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정신의학회*, 제40권, 제4호, pp.605-615, 2001.
- [32] P. R. Amato and F. Foeler, “Parenting Practices, Child Adjustment, and Family Divers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4, No.3, pp.703-716, 2002.
- [33] P. Bronstein, P. Duncanm, A. D’Ari, J. Pieniadz, M. Fitzgerald, C. L. Abrams, B. Frankowski, O. Franco, C. Hunt, and S. Y. O. Cha,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predicting middle school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Family Relations*, Vol.45, No.4, pp.415-426, 1996.
- [34] M. K. Demary, L. M. Malecki, K. K. Hodgson, and P. J. Rebu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udent adjustment: A longitudinal analysis,”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42, No.7, pp.691-706, 2005.
- [35] 김진희, 이상록, “빈곤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이웃환경,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2호, pp.365-387, 2012.
- [36] 황성현,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상호작용적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0호, pp.23-43, 2012.
- [37] 임성욱, 박민정, “부모의 양육태도유형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빈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8호, pp.169-190, 2012.
- [38] 정익중, 이은주, “비행 또래집단과 청소년 비행 간의 역동적 관계,”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습대회* 논문집, pp.3-29, 2009.
- [39] 김재엽, 송아영, 박경나,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연구: 긴장요인으로서의 자녀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7권, pp.295-318, 2008.
- [40] 이성식, “청소년 비행과 비공식 낙인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pp.1105-1127, 2007.
- [41] 김유자, 백윤매, “정상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우울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 제3권, 제1호, pp.139-160, 2000.
- [42]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43] 김재엽, 정윤경,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5호, pp.169-197, 2007.
- [44] 이해은, 최정아, “청소년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 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1호, pp.235-326, 2008.
- [45] 이해진, 백진아,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아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10권, pp.85-107, 2013.
- [46] 조예진, 주해원, 현명호, “부정적 양육과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비행피해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 pp.59-81, 2015.
- [47] 유영재, *청소년 비행의 통합적 경로모형에 관한 연구: 사회학습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48] 심현진, *청소년의 미시체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휴대폰의존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4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61895&cid=42149&categoryId=42149>, 2012.
- [50] F. I. Nye,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pp.379-381, 1958.
- [51] 기광도, “가정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분석: 사

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2호, pp.3-24, 2011.

[52] 하문선, 자율성, 관계성 및 우울을 매개로 한 초기 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공격성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53] 전영실, “성, 사회유대, 비행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pp.67-86, 2003.

[54] 이성식, “가부장적 가정의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별차이,”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 pp.97-117, 2011.

[55] 이성식, 전신현,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대립되는 두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5권, 제5호, pp.173-198, 2001.

[56] 김성경, “여자청소년의 비행경험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487-510, 2003.

[57] L. Briody and R. Agnew, “Gender and Crime: A General Strai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34, pp.275-306, 1997.

[58] 이은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1호, pp.149-168, 2000.

[59] 이해영,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교정복지학회, 제37권, pp.89-119, 2015.

[60] 임선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을 매개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비행경험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9호, pp.79-100, 2014.

[61] 이희정, 황선영, “청소년의 ADHD 성향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제42권, pp.83-108, 2013.

[62] 류미숙, 권미경, “휴대폰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차이비교 :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건강학회지, 제14권, 제2호, pp.76-83, 2011.

[63] 정복자,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과 휴대폰 사용행동의 관계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64] 차미숙, 외로움이 청소년의 휴대폰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5] 허혜경, 김혜수, 청소년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2004.

저 자 소 개

김 지 윤(Ji-yeon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심리학과(가정학사, 문학사)
- 2000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정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료(아동청소년복지전공)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복지

강 현 아(Hyun-ah Kang)

정회원



- 199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정학사)
- 199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정학석사)
- 2004년 5월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사회복지학 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가정외보호서비스, 아동빈곤